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정치를 주도해나가는 로숙한 정치가》

강인담대한 기상과 배짱으로 북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가 높이 칭송하고있다.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정력적인 사색과 실천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노력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업적을 계속 전하고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출판보도물들은 7월 25일과 2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사진전환을 정중히 모시고 특집하였다. 하바롭스크변방인터네트신문 《제브리 데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7월 27일을 전승절로 경축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간주되던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올해 정초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법하고 중동적인 제의를 하시어 전세계를 놀래우시었다. 만사람의 이목이 조선반도에 집중되던 시기

에 진행된 그의 중국방문소식은 실로 큰 행성을 커다란 충격으로 뚫어번지게 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또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리었음을 세계에 보여주셨다. 그의 미국대통령사이의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상봉은 세계에 보다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시기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있는 극적사변들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취하신 중동적이고 대법한 조치들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비상한 결단력과 과감한 협상력, 예리한 통찰력과 능란한 외교술로 현 정치정세와 대외관계를 능숙하게 주도해나간것이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조선반도의 현 분위기는 김정은위원장의 자신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하였으며 잡지 《네이시언》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대외의 원동력은 분명 그이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과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자신감을 가

지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로숙한 정치가》, 《비상한 용단을 지니신분》이라고 하면서 그의 천출위인상에 대하여 격찬하고있다.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비제이 폴리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수십년간이나 지속되어온데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 그러나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력사적순간들을 보면서 세계는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전세계를 들뜨게하였다. 특히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거룩하신 영상을 비오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세상사람들은 김정은각하께서 지니신 천재적인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에 탄복하였다.》

국제사회는 지난해말까지만 하여도 조선반도에 흐르던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가지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안정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그의 존함은 세계정치, 외교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라고 격찬하고있다.

얼마전 선군정치연구 네발문학단 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여 수십년간 조선반도에 존재하여온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조성되고있는것은 그의 굳은 의지와 노력, 송고한 민족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나아전국조정위원회 부위원장장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김정은각하의 송고한 민족애와 동이 큰 결단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할것과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된 국제사회의 신뢰와 경탄의 목소리는 날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이 행성에 더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동서고금에 없는 천하제일장군, 조선민족의 위대한 대양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양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귀중한 애국유산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천하제일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널리 소개 선전하고있다.

로씨야신문 《자브라》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력사에는 민족을 구원한 위인이 적지 않지만 그들의 공적과 헌신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절세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김일성주석께서 벌리신 항일혁명전사,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이다.

항일혁명투쟁은 그 간고성에 있어서 류례없는것이였다.

당시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장투쟁을 벌려 나라를 해방하신 김일성주석이사야말로 동서고금에 없는 천하제일장군이다.

조선민족이 그의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전설적영웅으로 칭송되며 높이 우리러모시고 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구마의 브렌짜 라피나통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은 전민항쟁의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국

을 해방하였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캄보쟈국가라지오방송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은 력사의 전환점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해방전 일제는 중세기적인 폭압통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이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민족자체를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었다.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해방은 단지 민족재생만을 의미한것이 아니라 노예로부터 주인으로의 운명적전환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나가고있는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인민들의 자주적운동명개척과 나라의 부강번영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조선해방의 력사적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겨보게 한다.

에집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은 전설적인 빨치산대장이실뿐아니라 민족의 위대한 대양이다. **본사기자**

이제까지 계시어 조선인민은 40여년간에 걸치는 망국노의 수난을 끝장내고 민족재생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된 조선인민앞에는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가며 무궁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인류사상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결출한 수령이다.

이제까지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조선해방을 이룩하시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인간사랑의 대화원으로 전변시키시었다.

김일성주석은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신 사회의 위인,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그이를 영원한 대양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8월 22일과 23일 안주공업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화학공업성,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남동청년과학연합기업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하였다.

탄소화합화학공업, 린비료, 촉매 및 회로용융기술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발표회에는 화

학공업부문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할 100여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이 기간 참가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교류활동을 벌리었다.

최근 화학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어 온을 내고 있는 성과자료들이 관심을 모았다.

발표회에서는 《조선매일에서 세리움의 산화특성에 대한 연구》, 《최근 린비료생산과 발전동향》, 《석회석—석고연에 의한 페가치리에 대한 연구》, 《진공분리자동출체계에 대한 연구》 등의 논문들이 현실적가능성과 경제성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23일에 있는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중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상이 있었다.

암로라염색기의 설계와 제작에 대한 연구》, 《세로프기에 의한 통구선수복장용그물천제작 방법》, 《파라핀유탁액폴머인 천 천속전공정》과 같은 논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기간 《PP섬유의 리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기도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중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상이 있었다.

《BD—200RCE형공기정방기에서 데트론방적실생산》, 《직접가열식고온

본사기자

판문점선언리행의 주인은 우리 민족

민족자주의 림장은 민족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림장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다. 다시말하여 민족자결은 데 민족에게 부여된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판문점선언리행의 주인은 다른아닌 우리 민족이다. 판문점선언의 리행은 곧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며 우리 민족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4.27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엄숙히 약속하였다. 판문점선언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 올리러모시고 리는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민족 자주통일선언이다.

그러므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하여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 림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

판문점선언에서 천명된대로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자주의 림장에 서서 공동보조를 맞추어나간다면 북남관계에서 해결 못할것이 없으며 조국통일의 미래는 그 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최근시기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분야에서 걸쳐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있다.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 북남장령군군사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북남철도협력분과회담, 북남도로협력분과회담,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등 부문별회담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갈래의 접촉과 교류들이 진행되고있다. 특히 북과 남은 국제체육무대들에서 일부 종목들에 북남단일팀으로 출전하여 단합된 민족의 힘을 과시하고있다.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의 일환으로 북남 출어전 가족, 친척상봉도 온 겨레의 관심을 더욱 힘있게 불러나가는 할 속에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지금은 누구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그 어느때보다 제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외세를 쳐다보고 그의 비위를 맞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리행의 주인으로서 제 할바를 다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리행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자각과 림장을 가지고 북남관계선진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재증조선인총련합회와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재증조선인총련합회 행사준비위원회가 지난 8월 8일 중구 심양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은복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부위원장장으로 최수봉 제1부의장, 차장보, 리순남, 김영녀 부의장들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재증조선인총련합회 본부와 산하조직들에서 경축보고회와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민주공고, 기네, 몽골, 도이쉴란드, 에파도르, 리비아, 나이지리아, 로스니아, 콩고, 단마르크, 쓰르비아, 우간다, 라이, 브라질, 알제리, 벨라루씨, 인디아, 노르웨이, 핀란드, 쿠웨이트, 스웨리에, 일본, 방글라데슈 등 여러 나라에서 결성되었다.

민주공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제렐레 갈론다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어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선땅우에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선을 세계적인 전라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운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세계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하고 이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천출위인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기념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는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아드 살부브가 발언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조선인민과 함께 경축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부강번영하는 나라로 전변시키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위위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과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결성식에서 몽골 자주적발전 위한 백두산협회 위원장 즈. 림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후 위대한 수령들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거두었다.

2018년은 몽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두 나라사이의 위

교관계설정 70돐을 계기로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아울러 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 나라들에서 결성된 준비위원회들은 경축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제준비위원회와 아랍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준비위원회들이 9월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로씨야의 정당, 단체들에서 결성되었으며 쓰련공산당 산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련합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란이슬람교련합당과 남아프리카공산당, 도이쉴란드 공산당에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본사기자**



집단주의적경쟁벌음으로 증산동력운동이 벌어지고있다. — 김정숙평양계사공장에서 —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위하여

삼지연군, 신도군, 경성군을 비롯한 지방들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는 모든 군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실현하고 인민들이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로고가 깃들여있다.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기본단위이고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을 련결시키는 지역적거점이다. 군에는 경제적, 물질기술적잠재력이 있으며 여러가지 자연부원도 많다. 모든 군들의 발전이자 나라의 전면적부흥이고 인민생활향상이다.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온 나라를 살기좋은 인민의 이상향으로 건설하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결심이다.

지난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 중농농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그이께서 그 농장을 찾으시신것은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회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단위로 전변시키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였다.

농장을 찾으시어 감자밭을 돌아보시고 농기계와 트랙터보유실태와 가동률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 농장을 농기계현대화의 본보기단위로 잘 꾸린 다음 그에 기초하여 삼지연군의 모든 농장들을 종합적기회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

벽하게 실현된 우리 나라의 표준으로, 농장원들의 리상이 현실화된 종합적기회화농장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소재지마을을 잘 꾸리기 위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시고 중농농장을 농촌진흥의 표준단위로 꾸리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삼지연군과 군안의 농장들을 현대문명이 융족된 리상군, 리상농장으로 전변시키도록 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8월 또다시 삼지연군을 찾으시고 군을 사회주의문명이 융족된 산간문화도시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삼지연군의 건설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북방의 이 건설전투는 삼지연군 하나만 잘 꾸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들을 모두 문명한 군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목표를 세우는데서 경험을 창조하고 본보기를 만들고자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나라의 군들은 각이한 자연지리적특성과 경제적조건으로 하여 등차가 심하게 발전하였는데 먼저 표준군을 잘 꾸려 전형을 창조하여 벌방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의 본보기를 만들고 일반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삼지연군 소재지를 잘 꾸린 다음 앞으로 군안의 농장마을들을 현대적으

로 개진하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군은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지방의 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이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문명수준과 문화생활은 군의 발전과 잇닿아있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북단에 위치하고있는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신도군을 찾으시고 특지와 떨어진 고장인 신도군에서 농사를 잘 하고 축산, 수산기지를 활성화하여 군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급자족할수 있는 생활민천을 이리신 그이께서는 군인민병원을 도시의 큰 병원 못지 않게 현대적으로 잘 꾸리도록 할데 대한 문제, 소학교, 중학교들을 잘 지어 교육환경과 조건을 일신하여 학생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대책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교육을 개선하고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는 문명국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신기술을 기울이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도군과 같은 섬 지방 인민들의 문화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이였다.

나라가 흥하고 인민들이 잘살려면 군을 비롯한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열

사무부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함경북도 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당중앙은 군당위원회에 나라의 해당지역의 인민들과 자원을 맡겼으며 군내자원을 옹계 리용하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책임을 지었다고 하시며 전반적인 국가사업이 잘되려면 군당위원회들이 자기의 역할을 옹계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성군은 별도 있고 산과 바다도 끼고있으며 교통조건도 좋고 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도 갖추어져있지만군 군당위원회가 자체경제조건이 유리한 군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지방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잘사는 문명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시려는 불타는 애국의 지로부터 출발한 애민현신의 정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불문불류의 로고, 정력적인 령도에서 보여 지방의 도시와 농촌들의 면모가 일신되고있으며 주제화, 현대화된 지방상업기지를 이룩하고있는 동음이 울리고 있다. 그러시고는 삼지연군 소재지를 잘 꾸린 다음 앞으로 군을 비롯한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열

인민들에게 베푸신 첫 선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공화국은 70성상의 전 행정에서 인민공화국으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활동하여왔다. 철두철미 인민적인 정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시책을 펴왔다.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첫 기슭에서부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사랑의 력을 쓴 공화국의 부피두터운 력사의 갈피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새겨져 있다.

공화국이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주제37(1948)년 9월 어느날 내각.

그날 내각 책임일군들, 교통성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나라의 산업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의논하시면서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잘사는 문명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시려는 불타는 애국의 지로부터 출발한 애민현신의 정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불문불류의 로고, 정력적인 령도에서 보여 지방의 도시와 농촌들의 면모가 일신되고있으며 주제화, 현대화된 지방상업기지를 이룩하고있는 동음이 울리고 있다. 그러시고는 삼지연군 소재지를 잘 꾸린 다음 앞으로 군을 비롯한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공화국은 70성상의 전 행정에서 인민공화국으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활동하여왔다. 철두철미 인민적인 정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시책을 펴왔다.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첫 기슭에서부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사랑의 력을 쓴 공화국의 부피두터운 력사의 갈피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새겨져 있다.

공화국이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주제37(1948)년 9월 어느날 내각.

그날 내각 책임일군들, 교통성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나라의 산업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의논하시면서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잘사는 문명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시려는 불타는 애국의 지로부터 출발한 애민현신의 정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지방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잘사는 문명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시려는 불타는 애국의 지로부터 출발한 애민현신의 정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불문불류의 로고, 정력적인 령도에서 보여 지방의 도시와 농촌들의 면모가 일신되고있으며 주제화, 현대화된 지방상업기지를 이룩하고있는 동음이 울리고 있다. 그러시고는 삼지연군 소재지를 잘 꾸린 다음 앞으로 군을 비롯한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열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되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어 인민들에게 베푸는 첫 선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물론 지금 기술과 경험, 자재를 비롯한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체로 철도를 전기화한다는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부다치는 예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반드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철도전기화를 하여야 하며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철도수술을 급속히 복구발전시켜야 한다, 그때야 나라의 경제를 부흥발전시켜 공화국복합부의 인구조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개고-고인간, 양덕-천성간 철도전기화공사를 오는 12월말까지 완공함으로써 주권을 잡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공화국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일군들은 모두 일어나 열광적인 박수로 수령님의 결심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된것은 공화국이 창건되어 인민들에게 베푸는 첫 선물로 되었다.

철도성 책임부원 강창복

정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온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

주제 102(2013)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안북도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창성식료공장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공장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을 현대화할바에는 잘 하며 현대화한 다음에는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지방공업공장들의 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원료

세심하고 구체적인 보살피심

몇해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분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땀땀 주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은 겨울이 빨리 오고 오래 지속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만큼 겨울철에도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의 학생들이 과외소화활동을 지장없이 할수 있게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여 온도보장문제를 원만히 풀도록 할데 대한 문제,

제품의 질을 개선하도록

두해전 12월 어느날 원산구동공장을 찾으시고 제품의 질문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생산토대가 그르흔하게 갖추어진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공장이 제품의 질적지표에서도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구두를 한켠케 만들어서 세계수준에서 질적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리시었다.

를 확보하는 문제도 설비들의 현대화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문제는 철저히 지방원료에 의거하여 푸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온 나라를 발전시키자면 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남의 본을 따려 하지 말고 자기 지방의 특색, 자기의 얼굴을 살리며 농마와 고기 등 원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배개봉국수경운을 더 잘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군정체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삼지연군에 또 오셨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지켜야 바라보며 사는 삼지연군 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발생산에서는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견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신발을 사람들의 성별에 따라, 연령상취미와 기호, 미감에 따라, 신체적특성에 따라,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 색깔과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어- 시원하다.》

문수물놀이장에서 붐 뜨는 마음과 함께 어느새 몸이 10m조약대에 울랐다. 못사람들의 시선과 고무줄 한껏 뻗으며 밀로 몸을 던지는데 그 짜릿함에 온몸이 울아드네. 침뿜- 물밖으로 머리를 내미니 여기가 어디인가. 와우도의 해수욕장같기도 하고 시중호수욕장같기도 하다. 아니 소나무가 무성하고 넓은 바다가 펼쳐졌으니 송도원해수욕장이 분명하다. 내가 언제 예까지 왔는 거. 아무러면 뭐라나. 몸만 식으면 그만이다. 또 자맥질을 한다...

지난 삼복철에 내가 꿈의 일부이다.

그러네 참 놀라운 일도 있다. 즐거웠던 꿈의 여운을 안고 출근길에 오른 나의 귀전에 사람들의 꿈이야기가 들려왔다. 누이는 간밤에 문수물놀이장에서 보냈고 또 누이는 송도원과 시중호수욕장에서 시간가는줄 몰랐다고... 보며 같은 꿈을 꾸는것도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것이 올해에는 레년에 없는 고온과 무더위가 휩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피서지를 찾았을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꿈나라에서조차 시원함을 향유하던 삼복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평안북도에서 량강도에도, 함경북도에서 강원도에도, 황해남도, 평안남도도 찾으시는데 이어

또다시 강원도와 평안남도, 함경북도, 량강도를 비롯한 공화국의 동서남북을 주름잡아달리시였다. 말그대로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시던 날은 원산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초복의 일요일이었다. 이날 현대적으로 꾸러진 양묘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대군인부부의 살림집을 찾으시어 가

인민의 소원

정살림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후날 그들내의는 그의 옷이 온통 땀으로 뭉쳐있어 너무도 안타까와 선공기를 들렀지만 날씨가 어찌나 무더웠던지 더운 바람이 나오느라 갈아 눈물이 나도록 속상했다고 그때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40℃라는 심한 더위를 피해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찾아가던 휴식일마저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로 보냈시였다.

인민은 소원하였다. 그이께서 삼복철만이라도 현지지도의 길을 멈추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였다. 하지만 그의 현지지도의 발걸음은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강원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친데 이어 평양으로 달려가시어 전승절을 맞이한 전쟁로병들을 축하해주시였으며 무더운 날 새로 만든 무레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여주시고 또다시 현지지도를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였다.

현지지도강행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사에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의 무더운 한여름에

도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험악한 동전야를 걸으시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온몸을 땀으로 적시시며 애국현신의 강령을 이어가시며 강성변영의 활로를 열어가시였다.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며 휴식일과 명절날, 생신날에도 끊임없이 달리고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루라도 편히 쉬시기를 인민은 절절히 바랐고 좋은날 좋은 길만 걸으실것을 간절히 소원했었다. 인민의 그 마음을 담아 《수령님 밤이 된 것있습니다》는 노래를 불렀고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는 노래가 온 나라에 높이 울리었다. 그러

나 인민들은 그 소원을 이룰수 없었다.

오늘은 공화국을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강국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며 인민들이 《불타는 소원》을 부르며 그의 로고를 넘려주지만 현지지도강행군은 삼복철에도 멈추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 현실이 되도록 하시려는분, 사랑받는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과 문명을 마음껏 누릴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시려는분들이여 그의 강행군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인민의 천만가지 꿈과 리상을 언제나 실천의 맨앞자리에 놓고 현실로 꽃피워주시면서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소원만은 항상 뒤전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사랑과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의 발걸음에 따라 천만군민은 애국총성의 마음과 보복을 맞추며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것이 그의 현지지도강행군을 따르는 전체 인민의 굳센 마음의 의지이다.

김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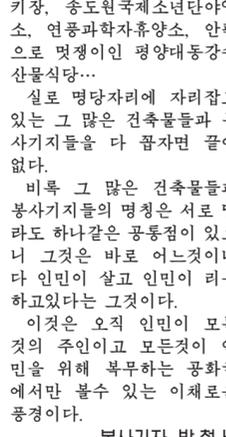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양로원



평양음악원



마식령스키장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산수수려하고 살기 좋은 곳을 가리켜 명당자리라고 하여 왔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 명당자리에 있어 행복을 꽃피워가는 주인들은 다름아닌 근로하는 인민들이다.

기묘한 철벽, 질은 록읍과 철따라 꺾게 되는 갖가지 꽃들이 하나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 모란봉과 맑은 물이 유유히 갈아흐르는 룡라도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은 예로부터 경치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런 명당자리에 신비스러운 동화세계를 펼쳐놓

은듯 한 아이들을 위한 평양음악원과 예육원, 로인들을 위한 평양양로원이 번듯하게 일떠서 대동강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공원과 놀이터를 비롯하여 모든 생활환경이 아이들의 지능개발과 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특색있게 꾸려진 육아원과 예육원은 물론 내정과 공민, 외랑을 갖춘 독특한 형식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양로원에서는 원아들과 보양생들이 국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부린 근심걱정이 행복의 나날들을 보내고있다. 하기에 이곳을 참관한 해외

동도들과 외국인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경치좋은 대동강기슭에 이렇게 탁월한 로인들의 회한한 집이 세워진게 놀라기만 하다. 아마 이 부지않은 내가 사는 나라에서라면 역대의 돈이 될 것이다.》, 《저 부모없는 아이들의 웃음에 조건의 진짜매력이 있고 가능할수 있는 조건의 진짜짜미가 있다. 그 매력, 그 힘의 뿌리는 김정영도자가 발산하는 인간사랑, 인민사랑이다.》며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각계층 인민들의 기쁨과 량만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룡라인민유원지와 룡라도 놀이장, 룡라도놀이장이 자리잡고있는 룡라도는 예로부터 대동강물결위에 실실이 휘날리던 능수버들이 마치도 구슬같은 맑은 물속에 비단필을 풀어놓은것만 같아 명당자리로 일러온 곳이다.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워온 룡악산의 기슭에 일떠선 생물공정, 비누공정에서는 인민을 위한 제품들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고있다.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연풍과학야영소, 안팎으로 멋쟁이인 평양대동강수산물시장...

실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그 많은 건축물들과 봉사기지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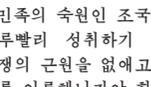
비록 그 많은 건축물들과 봉사기지들의 명칭은 서로 달라도 하나같은 품종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어느것이냐 다 인민이 살고 인민이 리용하고있다는 그것이다.

이것은 오직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종전선언채택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

조선훈고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어느덧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이 땅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겨레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정전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있다. 세계를 이어온 북남, 조미간의 적대관계와 대결상태를 끝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것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나서고있다.

나중에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것을 명시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조미 두 나라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것을 밝힌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찬동하면서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채택될것을 바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이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종전선언발표로 조미사이, 북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가 끝장나면 반세기이상이나 쌓이고

쌓인 불신과 적대의 앙금이 가서지게 될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려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면서 북부핵실험장 폐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일치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있다.

현실이 이러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저를 리행하게 되어있는 종전선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공화국에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들이먹이려 하고있다.

종전선언채택은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종전선언발표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적인 동시에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로 된다. 조미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것이 유익하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층도 《정전협

정이 필요하면 종전선언은 마필요》라고 하면서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올해안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금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전쟁이 영원히 종식된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여 종전선언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박영길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평화는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과 남이 마주앉아 통일을 위한 허심탄화한 대화를 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평화환경이 마련되어야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사업들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발광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 군사적대발행위로 말미암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한순간에 얼어붙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평화없는 통일과 번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고 민족의 생존에 대해 말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이제 65년이 흘렀지만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다.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지난 60여년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켜왔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무겁게 감돌고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 북남관계는 총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2015년의 8월사태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중동적인 노력으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북남관계,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지만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은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는 과제로

남아있다.

종전선언채택은 역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로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공작이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중, 미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역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의 합의에 배치되게 종전선언발표는 뒤로 밀어놓고 일방적인 비핵화요구와 《최대의 제재압박》만을 떠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는데 마땅한 책임과 의무감을 지니고있는 미국은 6.12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본기자 최광혁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8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26일에 끝났다.

24일부터 진행된 2차상봉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채택이후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배치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져 사람들의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선 비핵화》의 미명하에 미국이 벌이고있는 제재소동과 함께 군사적압박책동이 바로 그러하다.

얼마전 미국은 남조선주둔병력을 2만 2 000명이하로 축감할수 없으며 조선반도비핵화협상에 미군철수문제를 포함시킬수 없다는것을 조아박은 《2019년 국방수권법》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공화국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0억 US\$를 지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채협상 등을 통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영원히 타도있으려는 범죄적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채택이후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배치되는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져 사람들의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선 비핵화》의 미명하에 미국이 벌이고있는 제재소동과 함께 군사적압박책동이 바로 그러하다.

얼마전 미국은 남조선주둔병력을 2만 2 000명이하로 축감할수 없으며 조선반도비핵화협상에 미군철수문제를 포함시킬수 없다는것을 조아박은 《2019년 국방수권법》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공화국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0억 US\$를 지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채협상 등을 통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영원히 타도있으려는 범죄적기

남조선신문 자주적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8월 24일 사실을 통해 북남관계문제해결에서 자주적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문은 새로 나오게 되는 남북공동언론사무소는 4.27판문점선언에 명시된것으로서 《대북제재》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는 미국이 제 마음대로 꾸며놓은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 해도 되고 주변국들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것이 《대북제재》의 현실이라고 신문은 까맣했다.

민족문제에 민족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원칙이 확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사이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본기자 안권일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남단일팀을 무어 진행한 경기들에서 거둔 성과들이 민족의 통일열망을 더욱 불려일키고있다.

만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만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더 강해지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시위하였다.

승리로 기쁨넘친 경기장들과 열싸우고 기뻐하는 북남 선수들의 모습은 통일의 그날에 온 겨레가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눌 그 시각을 생각해 했다.

그러한 생각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남북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김주식, 럽대옥선수들에게도 간직되어있었다. 한낱의 무더위로 밝은 달아올랐지만 그들이 오늘도 훈련을 진행하는 빙상관안의 차디찬 얼음판은 녹을 줄 몰랐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2016년 메라노컵 빙상회경기대회 성인급 쌍빙기에서 1위, 2019년 아시아컵 공개빙상회경기대회에서 1위를 경회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그들이다.

세계적인 휘거명수가 되기 위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우와 같은 경기성과들을 이룩한 김주식, 럽대옥선수들에 대해 알고싶어 얼마전 우리는 김현선 대성산체육단 휘거감독을 먼저 만났다.

선수들이 일단 훈련에 들어가면 모든것을 훈련에 복종시킨다고 하면서 그는 선수들이 조를 무어 경기에 출전한다는 말만 하지 않지만 놀라운 경기성과들을 내게 된다는 나라의 정연한 휘거선수후비육성체제와 함께 선수들의 남다른 이의성이 큰 운을 내었다고 하였다.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품성과 강한 육체를 소유한 김주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은 은반우에 새겨가는 청춘의 꿈

유능한 감독들의 지도와 함께 경기경험과 대담성을 키워주기 위해 많은 경기들에도 출전시키었다.

그 나날에 이들은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여야겠다는 불타는 결의를 간직하게 되었다.

럽대옥, 김주식선수들은 휘거를 떠난 자기들의 생활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휘거생각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는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이다.》라고 말하였다.

통일념원을 은반우에 수놓으며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은 럽대옥, 김주식 선수들에게 있어서 체육으로서만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써 겨레의 통일념원을 은반우에 새겨가던 잊을수 없는 나날이기도 하였다.

화해와 단합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제23차 겨울철올림픽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이 파견될 때 이

겨울을 그렇게 잘하게 되었다는가고 물었다. 그래서 대답해주었다.

경기장에 들어가니 우리 응원단과 남녘의 응원단이 마음을 합쳐서 열광적으로 응원해줘서 심리적으로 고무되어 잘한것 같다. 북남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절감하게 됐다.》고 말하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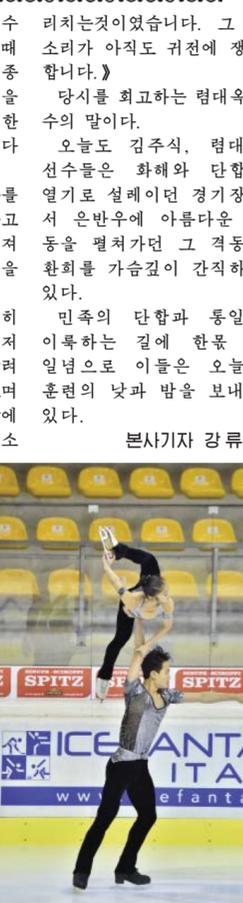
리치는것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전에 쟁쟁합니다.》

당시를 회고하는 럽대옥수의 말이다.

오늘도 김주식, 럽대옥선수들은 화해와 단합의 열기로 설레이던 경기장에서 은반우에 아름다운 물동을 펼쳐가던 그 격동과 환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탄 차가 서서히 떠나고 창문을 열고 손을 저어주자 많은 선수들이 달려와 우리의 손을 꼭 잡으며 잘 가라고, 통일이 된 날에 다시 만나자고 울먹이며 소

본기자 강류성



북남합의틀에 악랄하게 도전하여온 력대 남조선 보수패당의 반민족적 죄악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고발장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조미수뇌상봉으로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조선반도에 평화의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있다.

지금 8천만 온 겨레는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적인 현실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배로 절감하며 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7.4공동성명을 뒤집어엮은 반통일의 원흉

지난 세기 70년대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에 따라 오랜 기간 격쇄되어있던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고 그 과정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근본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채택발표되었다.

그러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남조선의 박정희군사파쇼당과 《민주공화당》 패거리들은 7.4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 이 민족단합과 통일이언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저들의 대결체제가 밀부리쳐 뒤흔들리게 되자 공동성명을 전전거부하는 길로 나섰다.

박정희군사파쇼당은 1972년 10월 《평화통일을 뒤받침》한다 하는 미명하에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태에 이 악명높은 《유신》독재체제를 조작하였으며 올해 6월 23일 조선반도의 영구분렬을 정책화한 《평화통일외교정책 특별선명》이라는것을 공포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국면을 완전히 과탄시키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7.4공동성명을 전전부정하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광분한 박정희군사파쇼당의 반민족적 죄악은 두고두고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도전해나선 역적패당

2000년 6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에서 채택발표된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6.15공동선언발표로 북남관계

를 비롯한 보수패당만은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듯이 악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 민족공동의 합의를 짓밟으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을 가로막아온 남조선보수패당의 반민족적죄악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말방까지 늘어놓으며 북남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예국적인민들과 통일에국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처형하는 파쇼적폭거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보수역적패당은 남조선 각계에서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눈착혀보려고 애용언론들을 내세워 《통일보다 분렬이 낫다.》, 《북의 산꼭대기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겠다.》는 반통일대결나발들을 꺼리낌없이 붙여대게 하는 한편 《반공강연회》, 《반공전시회》, 《반공대회》, 《반공골짓기》 등 대결광대극들을 미친듯이 벌여놓았다.

박정희군사파쇼당은 1972년 10월 《평화통일을 뒤받침》한다 하는 미명하에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태에 이 악명높은 《유신》독재체제를 조작하였으며 올해 6월 23일 조선반도의 영구분렬을 정책화한 《평화통일외교정책 특별선명》이라는것을 공포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국면을 완전히 과탄시키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7.4공동성명을 전전부정하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광분한 박정희군사파쇼당의 반민족적 죄악은 두고두고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사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시대, 6.15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사대매국과 반통일의 바통을

이온 남조선의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북의 통일선전전략에 맞서겠다》, 《돈을 주고 산 용공리점문서》라고 악랄하게 시비증상하였다.

보수패당은 공동선언리행이 《미군철수에로 이어질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양보하고 북의 고려련방제를 받아온 것》이라고 시비하면서 무조건 폐행위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한나라당의 사고는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감옥에 처넣던 1950년대 자유당정권때에서 멈춰버렸다.》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보수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는 2007년 10월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증상하고 선언리행을 가로막아온데서도 날날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을 괴수로 한 보수패당은 이 력사적사변의 의의를 깎아내리기 위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뛰었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대북정책에서 전평리자라는 소리를 들을가봐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앞아서 사느니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모두 일어나서 뛰자.》고 외치며 대결과 전쟁을 극구 선포해나섰다.

격적정인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보려고 쫓겨온 힘까지 짜내며 지랄발광한 역적패당의 행적을 꼽자면 실로 끝이 없다.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반역도배들

6.15통일시대를 결판내고 북남관계를 완전히과탄시키기 위한 보수역적패당의 대결광기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극도로 이르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대남공작문서》, 《법적주류권이 없는 정치적선언》이라고 골격으로 헐뜯었다.

역적패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진수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해 《배타적민족주의》라고 비방하면서 《열린 민족주의》를 해야 한다고 췌쳐

을 박해하다못해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적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조선에서 북을 《주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자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백서》에서 《주적》표현을 삭제하지 못하게 강박하는 정치강패행위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한나라당의 사고는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감옥에 처넣던 1950년대 자유당정권때에서 멈춰버렸다.》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보수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는 2007년 10월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증상하고 선언리행을 가로막아온데서도 날날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을 괴수로 한 보수패당은 이 력사적사변의 의의를 깎아내리기 위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뛰었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대북정책에서 전평리자라는 소리를 들을가봐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앞아서 사느니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모두 일어나서 뛰자.》고 외치며 대결과 전쟁을 극구 선포해나섰다.

격적정인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보려고 쫓겨온 힘까지 짜내며 지랄발광한 역적패당의 행적을 꼽자면 실로 끝이 없다.

《실용외교》의 간관밀 관계를 의세와의 관계를 대내외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관계를 그에 부응시키나가겠다는 것을 공명언히 떠들었다.

리명박패당은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고 북남대화와 협력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단하였다.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데 이어 《천안》호실물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5.24조치》라는것을 취하여 북남사이의 모든 협력사업들을 근원적으로 가로막았다.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며 대결기운을 고취하는 《주적》개념을 부활시켰는가 하면 의세와 함께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요란스럽게 떠들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회세의 대결판인인 박근혜역도의 집권으로 보수역적패당의 반통일책동은 더욱 엄청난 단계에 이르렀다.

사기와 협잡, 음모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박근혜역적패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젠선언》 등의 대결선언들을 대대적으로 조작하면서 체제대결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반공화국베라살로는 《표현의 자유이고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고 떠벌이며 극구 주장시키고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재개하는 등 의세와 야합한 동족대결에 뛰어들어 날뛰었다.

우리의 동족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가 마련될 때마다 역적패당은 《대화에서는 격과 글이 맞아야 한다.》, 《서부른 판단으로 남북

판문점선언리행을 가로막고있는 악랄한 대결광들

지난 4월 27일 긴긴 세월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뜻깊은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된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경사이며 특대사변이다.

판문점선언은 그 정당성과 감화력으로 하여 온 행성을 커다란 충격과 환호, 경탄과 찬사로 휩어받게 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온 보수역적당은 또다시 판문점선언리행을 거역해나섰다.

절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동포애와 자주통일용지가 넘쳐흐르는것으로 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의 경탄을 불러일으킨 우리의 북남관계대전환방침에 대해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비롯한 역적당패거리들은 《남남사이의 모든 협력사업들을 근원적으로 가로막았다.

《안보를 무너뜨리는 군사력을 리용하여 북의 핵, 미사일시설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씨균단독으로 《참수작전》을 벌릴 속내를 드러낸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런 베레》, 《멜라 포스》, 《네이비셀》과 같은 미군특수부대들은 지난 시기 월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과 같은 여러 전쟁들에서 악명

대화의 막뒤에서 칼을 간다

를 떨친 전적을 가지고있으며 이 부대들이 자주 기여드는 곳에서 미국의 흉악한 전쟁범죄가 저질러져왔다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미군특수부대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맹렬히 활동하고있는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미군특수부대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조미 두 나라 수뇌분들 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펼치려고 뒤에서는 악명높은 특수부대살인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까지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2중적책도는 지금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불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해처럼 조미관계가 다시 급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움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짊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펼치려고 뒤에서는 악명높은 특수부대살인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까지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2중적책도는 지금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불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해처럼 조미관계가 다시 급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움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짊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펼치려고 뒤에서는 악명높은 특수부대살인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까지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2중적책도는 지금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불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해처럼 조미관계가 다시 급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움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짊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펼치려고 뒤에서는 악명높은 특수부대살인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까지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2중적책도는 지금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불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해처럼 조미관계가 다시 급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움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짊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펼치려고 뒤에서는 악명높은 특수부대살인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까지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2중적책도는 지금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불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해처럼 조미관계가 다시 급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움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짊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펼치려고 뒤에서는 악명높은 특수부대살인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까지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2중적책도는 지금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불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해처럼 조미관계가 다시 급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움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짊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내용은 추악한 망동으로서 내외를 경악시키고있다.

지금 원내대표 김성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비핵화라는 현물을 보지 않고 현찰만 준 이 선언을 국회비준한다는것을 절대 용납할수 없다.》, 《국회비준을 얻고자 하는것은 실질적인 유엔안보리사회체제나 미국의 체제속에서도 대북경제협력을 하겠다는것과 다름바 없기때문에 동의할수 없다.》고 지껄어대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남조선선임을 우롱하고 모독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지어 미국내에서까지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은 북조선의 선에야 부응하며 체제해체와 같은 실질적인 신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민심과 대세의 요구에 합세해나서지는 못할망정 의세에 편승하여 남강도적인 반공화국체제와 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야말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천하역적무리들이 아닐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의 총본산》,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팍 써어 문드러지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반대해라.》...

이것이 오늘날 남녘의 민심이고 겨레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변화》와 《연선》의 간관을 들고 당명을 련속 갈아대며 변신놀음을 벌려왔지만 추호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변할수 없는 것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보수패당의 추악한 본태이다.

죄와 벌은 한가지에서 자라는 법이다.

력사적으로 민족공동의 소중한 합의를 악랄하게 부정하면서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남조선보수패당은 민족앞에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으로 하여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주제107(2018)년 8월 27일 평 양

미국이 지난 세기 만능무기처럼 휘둘러대던 케케묵은 《포함외교》 방식으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을것이다. 공화국은 미국이 대화의 막뒤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벌리고있는 비밀작전들을 그 어느때보다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그에 대처할 만반의 대응책들을 갖추어놓았다.

아메리카제국의 힘의 승배자들은 시대가 얼마나 달라고 상대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움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짊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펼치려고 뒤에서는 악명높은 특수부대살인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까지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2중적책도는 지금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불순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해처럼 조미관계가 다시 급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움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짊어질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반도평화와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심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

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움직임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요구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맞을것을 감행할 범죄적용체를 꾸미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펼치려고 뒤에서는 악명높은 특수부대살인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참수작전》훈련까지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2중적책도는 지금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과거범죄와 일본의 미래

지금으로부터 108년전인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였다.

하기에 해마다 8월이 오면 우리 겨레는 일본이 지난 세기에 저지른 처벌리는 만고죄악에 대한 분노로 더욱 피를 끓이고있다.

일본은 식민지통치기간 삼천리강토와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야수적범죄를 일일이 꼽자면 끝이 없다.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살인적인 고역장과 전쟁관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고 가 낚아채청춘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한 특대형인권유린만행, 랍치범죄 하나만 놓고보아도 이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지울수 없는 죄악으로 우리 겨레의 가슴에 새겨져있다.

일본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과거죄악은 대대손손 우리 민족에게 일드려 사죄하고 배상해도 다 갚을수 없는 죄악이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은 조선민족에게 사죄와 반성을 고사하고 저들의 죄악을 부정하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제철야망에 들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더욱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특히 현 일본총리인 아베는 지난 집권 6년동안 1993년이후 일본 력대총리들이 결코어나마 표명해온 《가해》와 《반성》이란 말을 한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을뿐 아니라 올해 8.15대명일에도 속죄는 고사하고 야스구니진

자에 공물료를 바치고 자기를 대신하여 우익반동들을 보내 참배놀음을 벌리게 하면서 군국주의 광기를 고취하였다.

지금 아베는 헌법 9조에 《자위대》존재정정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여 가까운 년간에 반도에서 성사시키겠다고 떠들고있으며 이 문제를 적극 부각시켜 대민중총선경에서 재집권의 야욕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일본은 이미 2015년에 자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 주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존재가 위협당한다고 판단되면 일본이 공격당한다고 똑같다고 보고 선제공격을 할수 있는 법적기초가 명시된 《안정보장관련법》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상 《자위대》에 《일반해병대》로 불리우는 《수륙기동단》을 내내내 이어 해상 《자위대》에는 최선형의 공격정수함 《세이류》호와 소해함 《히라도》호를 련이어 취역시키고 해상 《자위대》호위함 《이즈모》호를 함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또한 올해중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10배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미군수산업체인 루키드 마틴회사에서 42대분의 《F-35A》전투기 부품공급을 들여와 일본 미쓰비시회사에서 최종조립을 다그치고있다.

최근 일본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레년도 방위에산으로 사상 최대인 5조 2986억원을 편성하고 최종조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올해

보다 1000억정도 늘어난 액수로서 일본의 방위에산은 7년연속 증가하는것으로 된다. 일본이 《북조선위협》을 운운하며 친문학자역수의 군사비를 군사외국화에 쏟아붓고있는것은 내외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날로 우심해지는 일본의 군사비 대국화책동과 헌법개정놀음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제침을 노리는 섬나라족속들의 야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권세력은 최근시기에 이르러서는 뻔뻔스럽게도 《북조선과 직접 마주앉아 주요현안문제들을 해결할것이다.》는 낫도깨비같은 소리를 쳤고있다.

일본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깨끗이 청산하기 전에는 전범국가, 랍치국가라는 일본의 오명은 절대로 벗을수 없으며 저들이 그토록 안달아하는 조일관계개선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평화의 기류가 세계정치정세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력학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오늘날 유독 일본만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말의 도토리마냥 취급되고 있는것은 제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죄악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일본에게는 미래가 있을수 없다.

이전 《정권》이 강력한 반대여론을 무시한채 체결하였던 일

최근 남조선의 한 방송은 미군특수부대들이 일본과 필리핀, 남조선의 진해해군기지에 기여를 공화국을 겨냥한 비밀훈련을 벌여놓았다는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얼마전 일본주둔 미군특수부대들이 수송기를 리용하여 1200km 떨어진 필리핀 국화에 뛰어넘어 날아가 장거리 침투훈련을 강행하였는데 이것은 방향만 바뀐 경우 평양으로 침투하기 위한 훈련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해군의 핵잠수함 《미시건》호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있는 《그린 베레》, 《멜라 포스》 등 특수부대들을 남조선의 진해해군기지로 실어나른 정황도 포착되었으며 진해해군기지에서선 이미 《참수작전》 등 특수임무수행을 전문인 문제들을 해결할것이다.》는 낫도깨비같은 소리를 쳤고있다.

일본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깨끗이 청산하기 전에는 전범국가, 랍치국가라는 일본의 오명은 절대로 벗을수 없으며 저들이 그토록 안달아하는 조일관계개선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평화의 기류가 세계정치정세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력학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오늘날 유독 일본만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말의 도토리마냥 취급되고 있는것은 제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일본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깨끗이 청산하기 전에는 전범국가, 랍치국가라는 일본의 오명은 절대로 벗을수 없으며 저들이 그토록 안달아하는 조일관계개선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평화의 기류가 세계정치정세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력학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오늘날 유독 일본만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말의 도토리마냥 취급되고 있는것은 제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일본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깨끗이 청산하기 전에는 전범국가, 랍치국가라는 일본의 오명은 절대로 벗을수 없으며 저들이 그토록 안달아하는 조일관계개선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평화의 기류가 세계정치정세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력학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오늘날 유독 일본만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말의 도토리마냥 취급되고 있는것은 제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일본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깨끗이 청산하기 전에는 전범국가, 랍치국가라는 일본의 오명은 절대로 벗을수 없으며 저들이 그토록 안달아하는 조일관계개선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평화의 기류가 세계정치정세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력학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오늘날 유독 일본만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말의 도토리마냥 취급되고 있는것은 제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일본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깨끗이 청산하기 전에는 전범국가, 랍치국가라는 일본의 오명은 절대로 벗을수 없으며 저들이 그토록 안달아하는 조일관계개선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평화의 기류가 세계정치정세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력학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오늘날 유독 일본만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말의 도토리마냥 취급되고 있는것은 제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남 조선 단 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반대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기 위해

— 전진대륙기술교류사에서 —

최근 전진대륙기술교류사의 제품들이 명품, 명품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려인삼치약, 3색나노은치약, 톤치약, 표백치약, 니코틴제거치약, 청송염치약, 어린이치약, 비라민치약, 치주염전문치약, 각종 그릇세척제...

《맑은아침》이라는 상표를 단 이 제품들이 바로 전진대륙기술교류사의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이로부터 세상사람들속에서 등방의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워는 조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부름을 상표에 담을 때 이곳 교류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결심은 비상했다. 그것은 세상이 가장 훌륭한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야심만만 배정이었다.

치약을 사용할 때의 향기, 느낌, 거품, 색깔, 입냄새의 변화 등 10여가지의 물음을 제기하고 수요자들이 조항별로 내려가면서 의견을 적어 놓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품 전람회, 제품전시회와 같은 계기들에 대중평가를 제품결과와 함께 수요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의견을 받아보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다양한 기호와 요구, 여러가지 의견이 반영되는 수요자들의 맹정한 평가를 처음 받아보았을 때 생산자들의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없었지만 이러한 계기들은 한번 사용하면 상쾌한 감을 주면서도 오래동안 향기가 지속되고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며 나노은제거기술, 이발표백기술, 니코틴제거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 질높은 치약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용하면 할수록 이발에 윤기가 돌고 병증상에 따라 기능성치약들을 잇따라 사용하면 이발치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 사람들이 《맑은아침》치약을 즐겨쓰는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맑은아침》상표를 단 각종 그릇세척제들도 마찬가지로 질 좋은 그릇세척제를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이곳 생산자들의 불같은 열망은 또 하나의 첨단기능성제품을 개발하게 하였다.

교류사에서 생산되는 그릇세척제는 거품, 세척력,

살균력 등의 질적지표에서 우수할것은 물론 사용시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그릇을 씻어도 여성들의 손을 아름답게 보존할수 있는 독특한 기능도 나타내고 있다.

자체의 원료,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가 인정하는 《맑은아침》을 만들어내려는 전진대륙기술교류사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강한 자존심과 배짱은 불과 몇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전진대륙기술교류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첨단 돌파전을 더욱 과감히 벌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몇년전 이들이 처음 생산한 제품은 기능성치약이었다.

당시 교류사의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제품이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하기때문에 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못하였다.

이를 두고 생각이 많던 교류사의 일꾼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대중평가를 작성하고 제품경진주기를 6개월~1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치약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제품들과의 대비분석을 거듭하였다.

대중평가서와 관련해서는

일명 맹청이라고도 하는 약수는 땅속에서 철로 나오며 먹거나 바르면 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샘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공화국에는 오래전부터 그 약효가 인정된 유명한 약수들이 많다. 그중에는 평양의 대동강기슭에서 흘러나오는 옥류약수도 있다.

이 약수로는 신비한 치료효과와 독특한 맛으로 하여 옥류약수를 마시려고 매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평물질총량 2.053g/l 정도로서 칼슘과 나트륨 246.45mg/l, 칼슘 282.56mg/l, 마그네슘 53.5mg/l, 철이온 8.0mg/l, 염소이온 535.44mg/l, 수소탄산이온 811.3mg/l, 류산이온 52.66mg/l 등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있는 옥류약수는 만성위염과 위 및 십이지장염, 만성간염, 경한 당뇨병, 2차성빈혈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기자와 만년 조리경봉사원은 옥류약수는 땅속 192m에 있는 약수가 땅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른 물과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질검사와 설비소독을 엄격히 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옥류약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체제의 고마움을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평양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 들려 옥류약수를 시원하게 마시는 그 멋이야말로 평양에서만큼 볼수 있는 또 하나의 명경이었다.

일마전 현대적으로 개진된 이곳 옥류약수상점에서는 카

옥류약수 - 독특한 불맛에 약효도 뛰어나

드식약수공급기를 새로 제작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고있다.

기자와 만년 조리경봉사원은 옥류약수는 땅속 192m에 있는 약수가 땅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른 물과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질검사와 설비소독을 엄격히 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옥류약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체제의 고마움을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평양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 들려 옥류약수를 시원하게 마시는 그 멋이야말로 평양에서만큼 볼수 있는 또 하나의 명경이었다.

일마전 현대적으로 개진된 이곳 옥류약수상점에서는 카

트다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였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옥류약수를 한구부 마셔보았더니 그 맛이 다른 물은 마시게 되지 않는다. > 이 이야기 하였다.

평양시 중구역 오산동에서 생산되는 박춘삼리도 옥류약수를 마시면서부터 오래동안

아프고있던 만성간염을 고쳤다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옥류약수가 소화기계에 대단히 좋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효과가 눈에 띄게 알린다고, 말로 듣고서는 다는 모

평양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 들려 옥류약수를 시원하게 마시는 그 멋이야말로 평양에서만큼 볼수 있는 또 하나의 명경이었다.

일마전 현대적으로 개진된 이곳 옥류약수상점에서는 카

본사기자 리철민

《은하수》 제품들을 새로 개발

— 평양화장품공장에서 —

공화국의 평양화장품공장에서 화장품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에 힘을 넣고있다.

여러가지 종류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경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꾼들과 연구사, 기술자들은 탐구전, 창조전을 즐기며 벌써 50여종에 80여가지의 《은하수》 제품들을 새로 개발하였다.

화장품연구소에서는 수요자의 기호와 연령, 체질별특성에 따른 다양한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눈동분, 분분, 입술보호용연지, 볼연지 등 9종에 10여가지의 분장용화장품들이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연구개발되었다.

분체의 나노화를 실현하고 표면처리기술을 받아들인 분장용화장품들은 부착력이 높고 지속성이 좋으며 자연스러운 화장효과를 넘어서며 예술인들과 여성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품질에 따라 화장품의 우수성이 평가된다는것을 명심한 이곳 연구사, 기술자들은 머리칼화장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가지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새로 꾸린 초순수생산공정을 통하여 정제된 물이 리용되

고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 실현됨으로써 새로 개발된 남자용 샴푸를 비롯한 머리칼세척 및 보호화장품의 질이 날이 좋아지고있으며 윤력을 보장하면서 향기로운 머리칼영양액, 머리칼영양액 등 머리칼영양화장품도 사용자들속에서 애착심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 조국을 체육으로 성명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체육강국으로 만드시려고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이께서 전국 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 《마시르스키 경기-2016》 등을 보아주시며 체육발전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는 이야기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금메달로 민족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에 대한



일마전 나는 조국을 방분 하였다.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한 나였지만 그 기회에 꼭 만나보고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공화국의 여자탁구선수들에 대한 글을 읽게 된것이였다. 어디를 가보아도 세차게 일어 번지는 체육열풍이 바로 그것이었다. 가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체육관들과 체육공원을, 각종 체육시설들이 특색있게 꾸려져 누구나 배구와 탁구, 정구, 배드민턴과 같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하며 흥성하고있다.

안내하던 일꾼이 최근년간 해마다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보진부문

본사기자



공화국에서는 온천들마다 료양소들을 꾸려놓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병의 예방치료에 널리 리용하고 있다.

경성온천, 황진온천, 갈산온천, 신천온천, 배천온천, 석양온천, 종달온천...

이르는 곳마다에 건강에 좋은 광천이 비교적 풍부 분포되어있을뿐 아니라 땅결면의 넓이에 비해 그 수가 많다.

광천은 고대시기부터 사람들에게 기적을 낳는 힘의 원천으로 알려져왔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각종 광물이 용해되어있는 온천과 약수를 신성한것으로, 신비한 힘의 원천으로 생각해왔다.

온천에 의한 치료는 고조선시기와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시기를 거쳐 고려시기에 와서 더 많이 진행되었다.

광천치료자원의 개발력사가 수천년을 헤아리고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광천치료학문이 개척되기도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방직후 공화국에는 변변한 료양소조차 없었다.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에 벌써 나라의 광천자원을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식을 다양하게 조직하는 문제 등 료양소들이 들어치고 나가야 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었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해당 지역

화가 없을뿐 아니라 사람들의 몸에 유익한 미량원소들의 조성이 알맞춤한것으로 하여 치료효과가 매우 큰것이다.

그 물리적 및 화학적특성의 다양성으로 하여 우리나라 광천은 소화기계통, 신경계통, 비뇨기계통, 심장혈관계통, 산부인과계통의 질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의 폭이 넓은 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료양소들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 파괴된 료양소들을 빨리 복구하고 새로운 료양소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전사회적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 각지의 료양소들을 수십여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시면서 몸소 료양소의 터전을 잡아 주시고 그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료양소관리체계를 바로세워주시고 료양소의 물리적조건을 튼튼히 갖추는 문제, 료양생들의 문화휴

의 광천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조치도 취해주셨으며 료양소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여러차례나 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은정에 받들려 광천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온천형성에 유리한 지질학적조건을 갖추고있는 우리 나라의 광천은 다른 나라 광천들에 비하여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년중 거의나 광천의 온도변

화를 리용한 냉난방체제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대표적인 에너지를 절약기술개발과 도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에너지를 절약기술개발과 도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열을 리용한 냉난방체제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대표적인 에너지를 절약기술로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소년궁전,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에도 도입되었다.

공화국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자연에너지를 개발사업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점을 가지고있다.

료양생들은 해당 질병치료에 맞는 료양소들에서 친절한 봉사를 무상으로 받고있다. 날이 갈수록 광천의 치료효능이 더 많이 밝혀짐에 따라 광천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온천장들이 더욱 일신되게 되면 광천치료를 하는 료양소들로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자연에너지를 개발에 힘을 넣는다

오늘 자연에너지를 그 자원이 무진장하고 끊임없이 재생될뿐 아니라 리용에서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 《리용되는것과 같은 속도로 보충되는 에너지》로 평가되고있다.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면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을수 있을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대단히 유리하다.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 풍력자원이 풍부한 해상에 풍력발전기군을 형성하고 태양발전전에 유리한 지역들에 대규모태양발전소들을 건설하고있으며 해류발전이 풍부한 지역에 해류발전기를 설치하고있다. 메탄가스 리용기술도 사람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대중적인 기술로 발전하고있다.

공화국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이 땅에 조수력자원이 풍부하고 파도에너지를 개발리용할수 있는 전장도 있으며 해발고가 높고 평균기온이 낮은 북부고산지대는 태양발전전에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주목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태양에너지를 파력, 조수력, 생물질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

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심화되어왔으며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태양발전지제작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고효율태양발전지판들과 계통별형형변환기, 독립형변환기, 충전조종기 등 태양발전체계를 구축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으며 평양대경건가공공장,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태양발전소들을 세워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있다.

삼천리정미기공장, 금산포집갈기공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나라의 전력생산을 이바지하는 우점을 가진 계통별형형전력생산체제로 구성된 태양발전소들을

을 세워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생산되고있는 태양열물가열기는 한번 설치해놓으면 사계절 더운물을 리용할수 있고 그 성능과 품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기관, 기업소와 가정들에서 수요가 높다. 평양화장품공장, 해방산호텔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하여 덕을 보고있다.

센 바람이 부는 고장으로 유명한 강원도 세포지구를 비롯한 풍력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조수력자원이 풍부한 공화국의 서해안은 미세기차가 세계적으로 큰 지역의 하

나이더 지형상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조수력에너지를 개발에 대한 연구사업이 전방성있게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에너지를 절약기술개발과 도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열을 리용한 냉난방체제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대표적인 에너지를 절약기술로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소년궁전,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에도 도입되었다.

공화국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자연에너지를 개발사업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자연에너지를 개발에 힘을 넣는다. 사진은 사동구역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의 살림집들

그이의 사랑은 남달리 각별하시다.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체육인들을 몸소 비평장에까지 나가 맞이해주시고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체육인들과 감독들을 로력영웅으로,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고급살림집에서 살도록 해주신 이야기는 들을수록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었다.

내가 바라던 김정선수와의 만남은 평양시교외의 풍치수려한 곳에 위치한 4.25체육관에서 이루어졌다.

탁구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에 열중하다가 온듯 승

그이의 사랑은 남달리 각별하시다.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체육인들을 몸소 비평장에까지 나가 맞이해주시고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체육인들과 감독들을 로력영웅으로,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고급살림집에서 살도록 해주신 이야기는 들을수록 마음의 금선을 울려주었다.

내가 바라던 김정선수와의 만남은 평양시교외의 풍치수려한 곳에 위치한 4.25체육관에서 이루어졌다.

탁구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에 열중하다가 온듯 승

승리가 승리의 승리가 되네가 보자. 주체조선의 체육인들이 어떻게 이기를가를 뚫고 보여주리!

승리의 신심에 넘쳐 경기장에 나선 김정, 김혁봉선수들은 첫 경기에서 그리스팀을 4:0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공격력이 강하다고 하는 로세야팀과의 경기에서도 4:0 그리고 프랑스팀을 4:2로 눌러버렸다.

《본선경기 예선 4단계에서 맞닥뜨린 일본팀은 혼성복식경기에서만 거어 이 우승했다. 앞으로 대진하게 될 상대팀 선수들의 경기장면을 특화하여 그에 따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의 이 승리를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께와 우리 인민에게 드리고 싶다.》

이 심장의 고백이 전파를 타고 우공무궁에 퍼져가고 있을 때 그는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는 알지 못했다. 비행장과 거리의 거리에 펼쳐나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는 인민들의 환광과 국가의 명의로 진행된 성대한 환영회... 승리의 기쁨으로 조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체험한 모든 영광과 행복, 감격의 순간들은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사랑의 조치에 의해 마련된것들이었다.

평범한 탁구선수였던 김정이 받아안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하나만이 아닌 어머니조국의 체육인들 누구나 매일, 매 시각 받아안고있는 사랑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그 품속에 이룬남 여자축구선수들이 리금숙, 라은심, 허은범, 김명화, 승향심 그리고 이번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리은심, 최진위, 박명원, 오강철, 김효신선수들을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떨친 체육명수들이 수많은 배출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복반을 삶을 누려가는 체육인들을 보면서 나는 절세위인들을 모시어 체육인들의 삶도 빛나고 금메달도 빛난다는 진리를 때부로 절감하였다.

재중동모 김영숙

금메달에 비끼진리

체육경기대회, 예술인체육대회 등 부류별, 분야별 대중체육경기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국을 체육으로 성명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체육강국으로 만드시려고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이께서 전국 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 《마시르스키 경기-2016》 등을 보아주시며 체육발전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는 이야기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금메달로 민족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에 대한

전술방안을 미리 세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날의 경기에 대해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한다.

《1회전과 2회전에서 이진 일본팀이 3회전에서 그우세를 보이는데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선팀의 드센 공격에 완전히 수세에 빠졌다.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일본선수들을 보기 좋게 리승한 그들은 결승경기에서도 리승 강라를 들이대어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김정, 김혁봉선수들의 머리위로 공화국기발이 높이 올랐다. 경기후 우승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정선수는

전술방안을 미리 세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날의 경기에 대해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한다.

《1회전과 2회전에서 이진 일본팀이 3회전에서 그우세를 보이는데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선팀의 드센 공격에 완전히 수세에 빠졌다.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일본선수들을 보기 좋게 리승한 그들은 결승경기에서도 리승 강라를 들이대어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김정, 김혁봉선수들의 머리위로 공화국기발이 높이 올랐다. 경기후 우승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정선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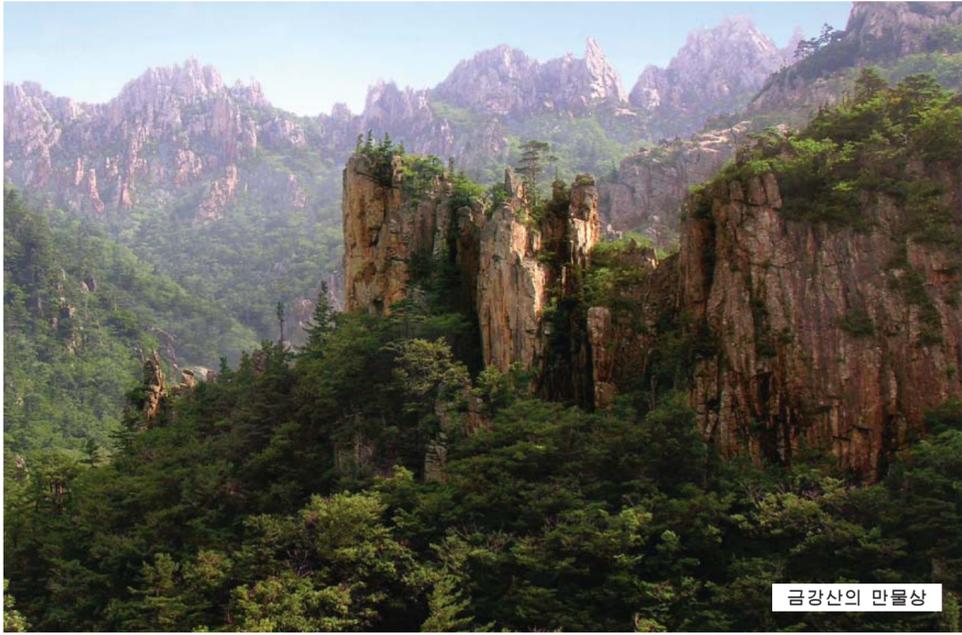
전술방안을 미리 세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날의 경기에 대해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한다.

《1회전과 2회전에서 이진 일본팀이 3회전에서 그우세를 보이는데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선팀의 드센 공격에 완전히 수세에 빠졌다.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일본선수들을 보기 좋게 리승한 그들은 결승경기에서도 리승 강라를 들이대어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김정, 김혁봉선수들의 머리위로 공화국기발이 높이 올랐다. 경기후 우승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정선수는



금강산의 만물상

얼마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인간 및 생물권계 획 국제조정리사 회 제30차회의에서는 조선의 금강산지구를 세계생물 권보호구역로 등록할것을 결 정하였다.

금강산지구는 자연지리 적특성으로 하여 1 200여종 의 식물이 분포되어있으며 그가운데서 꽃이 피는 식물 은 1 000여종, 특산식물은 100여종이나 된다.

금강산은 남북방향으로 놓 인 큰 산줄기에 놓여있어

금강산지구의 생물다양성

금강산의 식물은 우리 나 라 식물과 그 분 포를 연구하는데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 아니라 계절, 지역, 높이에 따라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 주고있다.

금강산지구는 자연지리 적특성으로 하여 1 200여종 의 식물이 분포되어있으며 그가운데서 꽃이 피는 식물 은 1 000여종, 특산식물은 100여종이나 된다.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각이한 울음소리는 명승지의 풍치를 더욱 돋아준다.

우리 나라는 그 어디나 다 절경경개이지만 그중에서도 금강산은 특출하게 뛰어난 명승지이다.

금강산의 절경은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 등 도처에서

는 108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있다.

학술적의의가 크며 아름다운 풍치를 돋구는 희귀하고 진귀한 동식물들과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 그리고 자연굴, 폭포, 온천, 호수, 섬들이 널리 분포되어있는 금강산과 그 일대는 천선대, 금강산 탐알바위, 상팔담, 삼선암, 귀면암, 구룡폭포, 창터소나무림, 련주담, 고성참대, 금강국수나무 등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된것들이 많다.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 국가천연기념물들과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금강산지구는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리용하고 지역의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이런 준비가 다되면 시루를 걸고 떡보자기를 간 다음 먼저 고물을 뿌리고 그우에 떡감을 2.5~3cm 두터이로 깔고루 펴고 다시 고물을 뿌려 놓는다.

이런 순서로 떡감을 몇틀기 놓은 다음 김을 올려 익힌다.

떡이 다 익으면 들어 내어 적당히 썰어 접시에 담아 낸다.

설기떡은 고물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팔설기떡, 옥두설기떡, 깨설기떡, 밤설기떡, 백설기떡 등 여러 가지로 나눈다.

맛이 좋고 소화흡수도



본사기자

민족음식 설기떡

사화 령마를 길들인 소년 (5)

글 황원철, 그림 김영희

그러나 단군은 머리를 가 로저었다.

《아직은 이르오이다. 제 가 이제 저 옷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제몸이 작다 하더라도 옷의 모양이 달라질것 이니 그러면 말이 놀랄수 있소 이다. 먼저 제몸크기만하게 비졌을 썬어 저 옷속에 넣겠 나이다.》

역시 용의주도하고 빈틈이 없는 아들이었다.

《음, 다 자랐다.》

단군은 《바쁘신 아버님 께 아이 그런 수고까지 끼 치겠나이까. 제 혼자서도 해 낼수 있나이다.》 하고 사양 했으나 이미 환웅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러나 단군은 머리를 가 로저었다.

《아직은 이르오이다. 제 가 이제 저 옷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제몸이 작다 하더라도 옷의 모양이 달라질것 이니 그러면 말이 놀랄수 있소 이다. 먼저 제몸크기만하게 비졌을 썬어 저 옷속에 넣겠 나이다.》

역시 용의주도하고 빈틈이 없는 아들이었다.

《음, 다 자랐다.》

단군은 《바쁘신 아버님 께 아이 그런 수고까지 끼 치겠나이까. 제 혼자서도 해 낼수 있나이다.》 하고 사양 했으나 이미 환웅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날부터 환웅은 매일 이 런 첫새벽이면 어김없이 청

계골로 들어와 아들과 함께 새벽를 지키곤 했다.

《성공이다!》

《아버님, 바줄을 주시오 이다.》

단군이 소리치자 환웅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바줄을 통구리채로 그에게 힘껏 던 졌다. 그 바줄은 환웅이 출가미를 만들어놓은것이였다.

《아버님, 바줄을 주시오 이다.》

단군이 소리치자 환웅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바줄을 통구리채로 그에게 힘껏 던 졌다. 그 바줄은 환웅이 출가미를 만들어놓은것이였다.

로 버쩍 주켜들며 옹충충 하고 울부짖었다. 그 순간 단군은 땅을 차며 다시금 번개 같이 말잔등에 올라탔다. 잠 으로 나무랄데 없는 기마동 작이였다.

《죽장님께 아뢰오. 오늘 도 이른새벽에 출행하신 아 드님께서 여적 훈련장에 돌 아오시지 않으셨소이다.》

《죽장님께 아뢰오. 오늘 도 이른새벽에 출행하신 아 드님께서 여적 훈련장에 돌 아오시지 않으셨소이다.》

《죽장님께 아뢰오. 오늘 도 이른새벽에 출행하신 아 드님께서 여적 훈련장에 돌 아오시지 않으셨소이다.》

《죽장님께 아뢰오. 오늘 도 이른새벽에 출행하신 아 드님께서 여적 훈련장에 돌 아오시지 않으셨소이다.》

《죽장님께 아뢰오. 오늘 도 이른새벽에 출행하신 아 드님께서 여적 훈련장에 돌 아오시지 않으셨소이다.》

《죽장님께 아뢰오. 오늘 도 이른새벽에 출행하신 아 드님께서 여적 훈련장에 돌 아오시지 않으셨소이다.》

문화유산을 통해 본 우리 민족의 우수성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오 는 문화유산에는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 성이 그대로 비껴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세 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 를 발명하고 다른 나라에도 도 널리 알려진 비단과 고려 자기를 만들어냈으며 오탁을 싫어가우면서 고유한 민족을 식문화를 발전시켰것을 비롯 하여 우수한 문화적재부를 많이 창조하였다.

최고년간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금속활자들 은 출토지가 명백한 금속활 자로서 서세상등정으로 보아 12세기 전반기부터 13세기 전반기에 주도되었 다는것을 알수 있다. 유럽에서 15세기에 금속활자를 발 명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 에 비해볼 때 이것은 고려 에서의 금속활자발명과 사용 이 수백년이나 앞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국가적으로 금속활 자를 주도하고 그것으로 도 서를 인쇄하는것을 장악하 는 서적원을 설치한 사실과 《동국리사공집》을 비롯한 력사자료들은 이 시기 금속 활자의 사용이 활발하였으 며 인쇄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 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금속 활자본으로는 《직지심경》 하권인 있다. 금속활자를 적 구 사용하였다는것은 당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은 책 들을 찍어냈다는것을 의미 하며 다량의 도서출판은 해 당 시기 사람들의 문화생활

에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 운 우리 민족은 일찌기 화 약을 제조하고 그것을 국방 적으로 발전에 널리 리용하 였다.

14세기에 벌써 최무선에 의해 화학적조방법을 발견 한 우리 민족은 1380년의 진보해전과 1383년의 박두 양해전에서 화학무기로 왜 적을 물리쳤으며 화학에 의 한 천공발파기술도 소유하

던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헌 인 《선조실록》에는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 기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족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 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파내는것 이였다.

한편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 기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족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 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파내는것 이였다.

한편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 기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족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 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파내는것 이였다.

한편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 기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족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 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파내는것 이였다.

한편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파 의식수준이 높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리 용한 비단도 세계에 널리 알 려져있다.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은 가볍고 빛깔이 우아하며 손 맛이 매우 부드러운 비단을 짜서 생활에 리용하였다. 우 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 장 이른 시기에 누에치기를 하였고 누에품종도 다른 나 라의것과는 구별되는 석잡 누에였다. 자라는 기간이 짧 고 생활력이 강한 석잡누에 에서 뽑은 실로는 부드럽고 가벼운 비단천을 짰는데 그 비단들은 겹보로서 다른 나 라의 비단과는 뚜렷이 구별 되는것이였다. 옛 문헌에 적 여진 《잠상을 알며 겹보를 만든다.》 라는 구절의 내용 을 통하여서도 조선사람들

이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 나 라 고유의 비단을 생산하였 음을 알수 있다. 《어아주》 (물고기의 이빨과 같이 하 얀 비단), 《조하주》(아침 노을과 같이 아름다운 색을 내는 비단)와 같은 비단들 은 다른 나라들에 널리 수 출되었다.

우리 민족의 차문화도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차문화라고 할 때에는 차 나무의 재배와 차의 생산 과 가공처리, 차그릇의 생산 과 사용 등의 종합적개념을 말한다. 벌써 세나라시기에 많은 곳에서 차나무들이 재배보급되었으며 고려와 백제, 신라사람들이 차를 마 신 자료가 여러 문헌들에 반 영되어있다.

우리 민족의 차문화는 오 늘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더욱 활짝 꽃피나고있으며 강령홍차와 강령흑차를 비롯 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차들이 널리 보급 되고있다.

이밖에 색깔이 독특하고 문양이 아름다운 고려자기와 웅건한 모습, 호랑하고 활달 한 글씨, 뛰어난 문장을 보 여주는 광개토태왕비를 비롯 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은 헤아 릴수 없이 많다.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 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 여주는 문화유산의 올바른 문 화유산정책에 의해 력사에 묻혀있던 문화유산들이 새 로 발굴고증되었으며 민족 의 력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황금속

이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 나 라 고유의 비단을 생산하였 음을 알수 있다. 《어아주》 (물고기의 이빨과 같이 하 얀 비단), 《조하주》(아침 노을과 같이 아름다운 색을 내는 비단)와 같은 비단들 은 다른 나라들에 널리 수 출되었다.

우리 민족의 차문화도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차문화라고 할 때에는 차 나무의 재배와 차의 생산 과 가공처리, 차그릇의 생산 과 사용 등의 종합적개념을 말한다. 벌써 세나라시기에 많은 곳에서 차나무들이 재배보급되었으며 고려와 백제, 신라사람들이 차를 마 신 자료가 여러 문헌들에 반 영되어있다.

우리 민족의 차문화는 오 늘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더욱 활짝 꽃피나고있으며 강령홍차와 강령흑차를 비롯 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차들이 널리 보급 되고있다.

이밖에 색깔이 독특하고 문양이 아름다운 고려자기와 웅건한 모습, 호랑하고 활달 한 글씨, 뛰어난 문장을 보 여주는 광개토태왕비를 비롯 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은 헤아 릴수 없이 많다.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 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 여주는 문화유산의 올바른 문 화유산정책에 의해 력사에 묻혀있던 문화유산들이 새 로 발굴고증되었으며 민족 의 력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황금속



묘향산 보현사의 대웅전

천공발파기술의 첫 발명국 - 조선

14세기에 벌써 최무선에 의해 화학적조방법을 발견 한 우리 민족은 1380년의 진보해전과 1383년의 박두 양해전에서 화학무기로 왜 적을 물리쳤으며 화학에 의 한 천공발파기술도 소유하

던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헌 인 《선조실록》에는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 기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족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 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파내는것 이였다.

한편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 기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족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 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파내는것 이였다.

한편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 기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족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 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파내는것 이였다.

한편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 기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족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 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파내는것 이였다.

한편 1606년 9월 김경림이라는 사람이 왕 (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 하고있는 은광석탈사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

김경림의 이 제기는 1606년이전부터 천공발파방 법을 널리 쓰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재 세계주요과학기술 발명일람표에는 광석채취 에 화학을 제워 터치는 천 공발파방법의 발명년도가 1627년이고 발명자는 오스 트리아의 광산기사로 기록 되어있다.

본사기자 황금속

김경림의 이 제기는 1606년이전부터 천공발파방 법을 널리 쓰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재 세계주요과학기술 발명일람표에는 광석채취 에 화학을 제워 터치는 천 공발파방법의 발명년도가 1627년이고 발명자는 오스 트리아의 광산기사로 기록 되어있다.

본사기자 황금속

본사기자 황금속